

## 시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 < 질 문 의 원 >

- 전준호 의원 : 2 건
- 홍장표 의원 : 2 건

## 전준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2001년도 「시민의 날 행사」 개최 방안

## &lt; 질문요지 &gt;

○ 2001년도 「시민의 날 행사」 개최 방법 결정을 위한 토론회 실시 등 시민 의견수렴을 통한 시민화합 한마당 행사로 개최 할 방안은?

- 금년에 16회를 맞이하는 「시민의 날 행사」는 그 동안 시민들의 문화·체육·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그 동안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96년과 97년은 각 동별 자체 체육행사로 실시하였고, '98~2000년도는 시 단위 통합 시민화합 행사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 자체행사와 통합행사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통합행사 개최시의 장점은 일정한 장소에 전 시민이 하나가 되어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시민의 일체감 조성 및 안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신도시의 취약요소인 시민의 정주의식을 함양하고, 22개 동 대항 체육대회를 통하여 경기도 체육대회 등에 출전할 우수선수를 발굴 육성하여 우리 시 위상을 드높일 수 있으나, 단점으로는 한 장소에 모여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전 시민이 함께 행사를 할 수 있는 운동장 규모의 제한적인 사유로 인하여 동별 대표선수 및 일부 동민의 참여로 동별 자체행사 보다는 시민 참여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 동별 자체행사 개최시에는 행사규모는 적지만 동민 참여율이 높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행사를 추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통합행사에서 얻을 수 있는 시민의 일체감과 정주의식 함양은 부족한 것이 단점으로 나타났으며, 현재는 동기능 전환에 따라 행사지원의 일익을 담당하였던 동사무소 공무원의 인력축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 미흡으로 동별 자체행사 개최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01년도 「제16회 시민의 날 체육행사」는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하여 동장, 통장협의회, 새마을 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사전에 개최하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신중히 검토하여 60만 시민의 화합과 결속의 계기를 마련하는 축제의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 안산신도시 2단계지역 건설공사

## < 질문요지 >

- 신도시2단계 지역 공공시설물 인수단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용신로 육교 설치 계획은?
- 건축공사에 대한 민. 관 합동 시설감시단 운영방안은?

- 우리시는 신도시 2단계 사업에 대한 준공을 대비하여 99년10월29일 공공시설 인수단을 5개 분야인 도로, 교통, 상·하수도, 공원녹지 등 관계공무원 22명, 민간단체 5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동안 실시한 점검결과는 불임(첨부)자료와 같습니다.
- 그밖에도 신도시2단계 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단계지역 공사 설계도면을 CD-ROM으로 제출받아 차후 하자 및 도시기반시설물 인수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생활현장대화의 날 및 주민 반상회시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별 수시 점검 등을 통하여 향후 시설물 인수시 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 성안초등학교 앞 용신로상 보행육교는 우리시의 육교(지하도)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육교설치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2001년 6월 14일 안산신도시2단계 및 시화지구 현안사항 추진관련 회의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하도록 협의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다음은 「건축공사에 대한 민·관 합동 시설 감시단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위법 건축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자기가 설계하고 공사감리한 건축물에 대하여 형식적인 준공검사가 될 수 있어,  
우리 시에서는 2000.7.21일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준공검사자를 당해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나 설계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를 지정하여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그 결과 관내의 불법 건축물을 사전 차단하고 건축주, 시공사, 공사감리자의 의식개혁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사료되나, 일부 건축주의 경우 다가구주택을 개조하는 등 불법이 성행되고 있어 불법 다가구주택에 대한 방지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준공후의 시정보다는 공사 중일 때 모든 불법사례를 시정할 수 있도록 민. 관 합동 시설감시단을 구성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안산신도시 2단계 인수단 구성 : 6개반 27명

총괄		도시계획국장	
		반장	도시계획과장
		반원	도시계획담당 외1인
도로시설분야		교통시설분야	
조장	건설과장	조장	교통행정과장
조원	보수담당 한상길	조원	교통시설담당 최봉률
민간 단체	안산공과대 윤희천 교수	민간 단체	금호엔지니어링 (이창민)
하천하수도분야		녹지·공원·광장분야	
조장	하수행정과장	조장	공원녹지과장
조원	하수정비담당 송재화 박영석	조원	공원담당(공원) 녹지담당(녹지광장) 이상관 서병구
민간 단체	경실련 (사무처장) 박홍래	민간 단체	그린스카우트 (사무처장) 박현규
상수도분야			
조장	수도시설과장	조원	누수방지담당 문원식
민간 단체	대흥건설 류승열		

□ 안산테크노파크 냉·난방 열원방식 및 부지매입비 사용용도

< 질문요지 >

- 지역난방 설치를 재검토 할 용의는?
- 도시가스를 선택한 사유는?
- 부지매입비 150억원의 향후 용도는?

- 안산테크노파크는 지난 97년 12월 통상산업부로부터 지정되어 산업자원부, 경기도, 안산시 및 경기도내 6개 대학교가 매칭펀드 형태로 출연하여 우리 안산시 산업의 발전과 미래 지향적인 첨단산업도시 건설을 위하여 현재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안산테크노파크의 건물 신축공사에 지역 난방이 아닌 도시가스를 채택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산테크노파크는 한양대학교내의 부지로서 위치적 특성상 지역 난방과 도시가스가 동시에 공급되지 않는 지역으로, 의무적 지역난방 고시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 안산신도시 2단계 확장단지의 지역난방 동 공사 준공시점이 2002년 12월로 안산테크노파크 준공시점인 2002년 7월보다 시기적으로 늦어 안산테크노파크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으며, 취사는 물론 냉·난방 및 생산시설 등 그 열원이 반드시 도시가스를 사용하여야 하는 2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러한 문제점 해결과 안산테크노파크의 완벽한 설계를 위하여 2000년 7월 3일 시정 보고회를 시작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자문위원회 등 총 4회에 걸쳐 설계검토를 하여 열원 방식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도시가스를 열원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안산테크노파크 열원 공급방식 설계검토자료 사본 기 제출)
- 아울러 지역 난방을 채택할 경우 도시가스를 설치해야하는 중복 투자요인이 발생하여 공사비가 약 10억 4천여만원이 추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 측면에서도 냉·난방 및 관리비 등 연간 약 7천 4백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됩니다.
- 따라서 안산테크노파크의 열원 공급은 예산 절감과 향후 관리는 물론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가스로 선정하게 되었음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부지매입비 150억원의 사용 용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지매입비는 당초 150억원으로 책정되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중인 사동 간석지 3만평을 매입코자 하였으나 지가상승(약 117만원/평)이 너무 높게 적용되어 책정된 평당 단가를 적용할 경우 35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약 200억원의 추가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었고,

지가 및 건축비의 상승 등 현실적으로 변경요인이 크게 발생하여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양대학교 부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한양대학교의 부지 무상임대에 따라 당초 책정된 부지매입비 150억원이 절감되었으나, 97년 6월 안산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신청 당시 우리시의 출연금이 535억원으로써 그중 토지매입비가 150억원으로 통상산업부 장관과 협약되어 있어 일방적인 변경은 어려우나, 현재 용역 시행중인 “안산시산업구조고도화 기본계획 용역”에 안산테크노파크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과제가 포함되어 있어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방향을 설정한 후에, 산업자원부, 경기도 등 중앙정부 및 시의회와 다각적으로 검토 협의하고 우리시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지매입비 절감액 150억원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양상동 고속도로 진입로 확장(4차로→6차로)

##### < 질문요지 >

- 양상동의 안산 IC 고속도로 인천방향 진입로가 신설되면서 차량이 증가되어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바, 월피동 성호주유소에서 안산 IC 입구까지 진입로를 4차로에서 6차로 확장 할 용의는?
- 그 동안 추진해온 서안산 IC 진입로 개량 및 영업소 건설이 당초 계획한 톨부스 14개소를 6개소로 축소하여 임시영업소를 설치하고 지난 2001년 5월 3일에 고속도로를 개방식에서 폐쇄식으로 전환 운영함에 따라 극심한 교통혼잡이 발생되어, 5월 4일 인천에서 서안산 IC로 진입하는 고속도로 출구를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 이로 인하여 인천에서 서안산 IC를 이용하는 차량이 안산IC로 진입하여 교통량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현재 서안산 IC 영업소의 임시운영에 따라 안산IC 진입로와 서안산 IC 진·출입로에 발생되고 있는 교통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흥시 등 관계 기관과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금년 7월말 개통 예정에 있는 매송 IC 진입로 개통과 임시 운영되고 있는 서안산 IC 영업소가 당초 계획대로 완료 개통 시에는 현재 안산 IC 이용 교통량이 분산되어 교통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서해안 고속도로의 서안산 IC, 안산 IC, 매송 IC 등 진·출입로와 영업소가 준공되어 정상 개통된 이후에도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확장, 교차로 입체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교통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